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찬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탄 찬송과 말씀으로 모아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약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보좌 떠나사 구유 안에 누셨네”

이제 12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2월을 몹시 설레어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어서도 그렇지만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거리, 파티와 선물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무엇가를 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파티와 선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초점은 오직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영광 받으라 왕의 왕, 배들레헴에 나신 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금요집회 때마다 드리고 있는 성탄 찬송들은 이제 성도들의 간증이 되어 삶 안에서 그대로 묻어 나고 있습니다. ‘명명한 새벽별’(요 8:12)로 시작된 성탄 메시지는 성도들의 심령에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풍성히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요집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에도 성탄 찬송과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는 성탄절의 화려함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직 구주 나심을 감사하는 참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레헴 성당에 가 봅시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집회)

창조와 타락

에덴동산 중심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자를 주시며 동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을 어길 때에 받은 벌은 그들이 죽게 된다는 형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으며 인간 개인을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면서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창조된 인간은 관계를 갖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위해서 선악과와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는가를 의심하게 했다(창 3:1). 사단은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속임수로 꾀었다(창 3:4,5). 뱀의 유혹에 빠져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남편도 먹게 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는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지경을 아담과 하와가 무시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창 3:24). 인간들 사이의 완전한 교제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숨어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창 3:7,8). 그들은 가장 낮은 악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으나 그것은 불분명하였고 계속 새 것을 만들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내시었다(창 3:9).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첫 회생을 만드셨다(창 3:21). 여기에 쓰여진 “가죽 옷” 즉, 동물의 회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졌다(히 9:11,12).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 정해 주신 범위가 당신들을 보호함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하는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계를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히 10:7~10; 요 14:6).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는 악과 고통과 파괴로 가득 차게 되었다(창 6:6). 그 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신다(창 6:13).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시니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 이 세상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노아를 기우셨다. 반면 노아가 치른 댓가 또한 아아마하다. 큰 비가 온 적이 없는, 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서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처럼 외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했는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다. 홍수 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이나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창 8:1).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신다. 즉,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창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다. 소망은 인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와만 한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권적인 선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거하시면서 참으시고 이 세상을 지켜 나가실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변제를 드릴 때에 다시 한 번 피를 기억하게 된다(창 8:20). 변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다시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창조를 멸하지 않을 것을 선편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셨다(창 9:6).

노아에게 주셨던 마지막 약속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실제적인 사인이다. 물론 인간 혼란과 죽음이 끝까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창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은혜로운 사랑의 행위이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인간에게 소망을,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기다림, 그의 마음을 바꾸실 또 무지개로 주신 새 언약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아처럼 긴 시간을 기다리며 늘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은총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했면 때가 언제인가!

O Little Town of Bethlehem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Micah 5:2)

The wonderful Christmas message in today's bible verse points to a special place called Bethlehem Ephrathah. Ephrathah was the ancient name for Bethlehem. It was a very small town located about nine kilometers south of Jerusalem that no one, except those who believed in the Bible, would expect something so monumental to happen there. It was the site God chose for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to finally come together.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was to be the birth place of the Savior. Its history and symbolism is significant. The Bible's first mention of it concerned Rachel, Jacob's wife. She died after giving birth, and was buried "on the way to Ephrath (that is, Bethlehem)" (Gen. 35:19). So, the first reference to Bethlehem had to do with sorrow, and Jesus was a man of sorrows,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Is. 53:3). The name Bethlehem means "House of Bread", and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6:35). Bethlehem was also the home of King David, whom Samuel anointed there (1 Sam. 16:12&13), and its water was something David craved in the midst of battle, "Oh that someone would give me water to drink from the well of Bethlehem which is by the gate!" (2 Sam. 23:15). Jesus told the woman by the well,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who says to you, 'Give Me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Jn. 4:10). Finally, Ruth found love in Bethlehem Ephrathah (Ruth. 4:11), and God's love for this world came to fruition there. Little Bethlehem was where God planned for His Son, our Savior, to be born.

From Bethlehem,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v. 2). Bethlehem was too little to be counted among the clans of Judah, but not too little to host the ruler of the world. At first glance, the idea of becoming only a ruler in Israel sounds very local; many people ignore and neglect the fact that the Lord

Jesus through that kingdom rules the entire earth. Seven hundred years after this prophecy, an angel appeared to Mary and said,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Lk. 1:31-33). Well, today's prophecy was fulfilled, and Jesus is ruler over all creation!

Bethlehem was the location of the incarnation of the Eternal God,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v. 2). The Old Testament describes the incarnation as God taking upon Himself the form of a servant in Bethlehem. Philippians 2:5-7 says,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The eternal God came to little Bethlehem.

My dear friend,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Ephrathah was God's chosen place of blessing, where meek souls can still receive Him.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please humble yourself, so that when you look into the manger you can find the Messiah and worship and praise Him. He deserves your worship and praise. Little Bethlehem was the birth place of the Messiah, and the One born there rules all creation. His birth was the incarnation of the eternal God. No one, except those who believed, really expected it. No one, except those who believe, really expects to die and go to hell. Listen to me my friend, proud people can not see little things, and God uses the little, the weak, and the poor for His kingdom. If you are not humble, you cannot obtain salvation, and without salvation you are eternally damned. Christmas is all about good news! Jesus Christ was born in little Bethlehem, He rules all creation, and He is the Eternal Go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 life. Amen. 🕊

다음 주일 설교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가 5:2)



김성환 목사

오늘 성경 본문에 예언된 놀라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특정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이 작은 마을에서 이처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성경 말씀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모든 시대의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장소였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예언된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은 구세주가 탄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 곳의 역사와 그 상징하는 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곳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에브라타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창 35:19). 이처럼 베들레헴의 첫 번째 언급은 슬픔과 관련된 것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베들레헴은 또한 다윗 왕의 고향이었으며 사무엘은 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삼상 16:12,13). 다윗은 전쟁을 하는 중에 그 곳에 있던 우물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쉼골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하배"(삼하 23:15).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 롯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룻 4:11). 그리고 그 곳에서 마침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곧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날 장소로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장소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2절).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서 유다 족속에 속한 마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국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지 700년 만에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1~33). 오늘날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장소

베들레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장소였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2절). 구약성경은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이 종의 형체를 취하여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5~7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겸손한 영혼들은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이 매일 매순간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구유 안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여러분은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작은 베들레헴은 메시야가 태어날 장소이고, 그 곳에서 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아무도 이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그 누가 정말로 믿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낮고 천한 일이나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께는 영원한 멸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아멘. **W**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새로운 시작 (빌 3:10~14)

주님께서 도우신 엘리야의 사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 그는 절망하여 죽으려고 하였다(왕상 19:3,4). 이같은 엘리야를 향해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13). 이 주님의 음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도왔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말씀으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를 떠난 말씀에 매여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라. 그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말씀을 믿고 있었다(마 27:62,63). 그러나 결국 이것은 자신의 의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세상과의 타협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것이었다(마 27:64,65). 악한 무리들은 말씀을 악용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에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빌 3:7,8).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의 기본은 세상의 가치를 놓아 버리는 데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였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기쁨으로 찬양하였다(빌 4:4).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의 것은 모두 제쳐 버렸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의 것은 모두 잊어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예전 동안 이후로 우리들에게 선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 본이 될만한 것은 없다. 과거의 모든 공로, 업적, 실수까지도 모두 잊어버리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고, 오직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요일 1:9).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다. 보혈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에 회개할 때 과거의 죄는 사라진다(요일 2:1). 우리도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렘 31:34; 히 10:17).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된다. 과거에 매달릴 불평, 불만, 화에 사로잡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보혈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존할 수 있다(사 38:17).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거의 것은 모두 제쳐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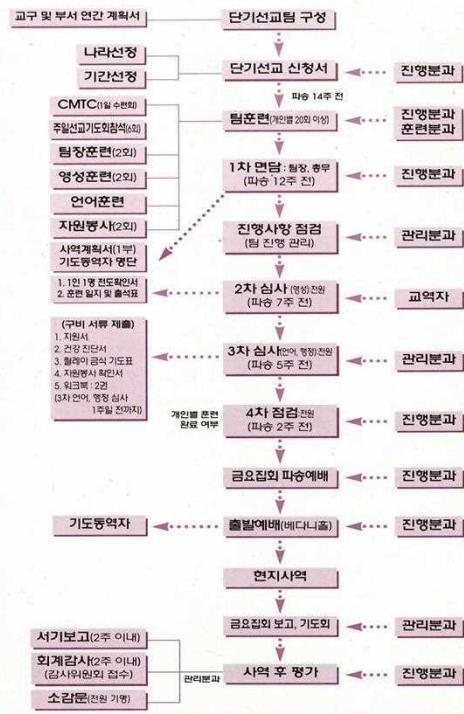
앞에 있는 것에 손을 피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2).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과거에 붙들었던 자신의 의, 공로, 고만, 자존심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피자. 자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전심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십자가만을 붙들었던 바울의 삶의 방향은 매우 분명하였다. "믿음의 삶"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어야 한다(사 53:12). 이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살 때 죽음조차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빌 1:21).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앞에 놓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꽃대를 향하여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꽃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는 것, 인격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꽃대가 아니다. 꽃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우리의 처음과 끝은 오직 꽃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눅 16:16). 지금 견고 있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꽃대를 향해 걸려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 길을 걷자. 이 길의 끝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전 9:25).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였다. "내가 선했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은총의 간증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꽃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과거의 것을 모두 제쳐 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꽃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간단 명료하다. 성령님에 의한 삶이 되면 가능하다(살전 5:19). 성령님께서 조종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된다(엢 4:30). 매 순간 자신이 부서지고 깨져 새롭게 빛어져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깨뜨리려고 할 때 힘이 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깨어지고 부스러질 것이다.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야 삶의 유일한 정답이다(막 9:23). 자신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마 16:24).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라!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아름답고 활기 있게' 다 변화해. 아담,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찬송하네.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찬 414장).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나를 생령히 여기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실한 회개와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향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소서. 주님만 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08년 단기선교 진행 흐름도



장로 칼럼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보혈의 증인 그리고 세워질 보혈의 교회



차신득 (장로, 선교위원회)

성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마 28:19,20). 그러기에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중현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복음에 헌신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고 단기 선교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내 외국인 선교부 사역 및 현지인 선교 사역자의 양성을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족속,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찾아 선교하는 개척 선교, 한국인 선교사나 현지인 교회 등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독립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며,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현교회는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선교를 지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으며 오직 영적으로 준비되고 교회의 선교사역 원칙에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님의 역사

지금까지 9천여 명의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30여 개국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2007년도에도 단기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276장과 로마서 15:19~20을 주께 찬송과 주께 성구로 정하여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로 모아진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미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에 보혈이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것입니다.

성령에 자원하는 성도

중현교회에 등록하고 만 1년이 지난 세례 교인으로 공집회 출석,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단기선교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CMTC 및 팀 훈련을 마치고 선교위원회의 심사 및 점검을 통과한 자, 1인 1명 이상 전도한 자, 신체의 질병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가 단기선교 팀원으로 파송됩니다. 타고난 교인이 우리 교회 단기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회 당회장의 추천으로 우리 교회의 CMTC 훈련과 팀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선교의 사역 원칙

단기선교 사역 원칙은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 나갑니다. 개인 전도, 노방 전도, 방문 전도 등 1:1 개인 전도 위주의 직접 전도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 교회 방문이나 통역 및 안내자의 도움은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선교를 지행합니다. 선교팀은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되 기록을 정확하게 하여 사후 보고와 함께 감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는 카메라, 음식물, 선물 휴대 및 현지에서의 기념품 구입 금지 등은 강조하지 않아도 계속 잘 지켜지리라 기대합니다. 선교 대상 국가는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교의 문이 닫혀져 가는 나라는 더 단기간 전에 선교팀을 파송하여 부지런히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선교팀 구성

단기 선교팀의 파송을 위한 준비 과정은 팀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면담과 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영성 준비 사항 심사와 3차 언어·행정 사항 심사 및 4차 점검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면담은 팀 신청 2주 후에 하게 됩니다. 선교위원들이 팀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선교지에 대한 현지 사역 계획서와 영적 관심도, 개인적인 준비 사항, 팀 훈련 지도 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2차 영적 준비 사항 심사는 파송 7주 전에 합니다. 선교위원회가 지정한 시간에 선교위원의 지도복사들이 팀장을 포함한 팀 전원을 대상으로 선교의 이해, 교회 헌신, 공예에 참석 등 영적 준비 상태를 철저히 검사할 것입니다. 3차 언어 및 행정 사항 심사는 파송 5주 전 역시 선교위원회가 지정한 시간에 선교위원들이 팀장을 포함한 팀 전원을 대상으로 언어 준비, 1인 1명 전도, 건강 상태, 자원 봉사, 팀 훈련 상태 등을 심사할 것입니다. 4차 점검은 파송 2주 전에 갖는 최종 점검으로 선교위원들이 팀 전원을 대상으로 최종 준비 상태, 건강 상태 및 파송 계획 등을 확인합니다.

선교 훈련(Choonghyun Mission Training Course)

선교 훈련(CMTC)은 단기선교를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선교 훈련은 2주 과정(2주일 2시간 수강)과 1일 수련회로 구성됩니다. 2주 과정은 사도행전의 선교,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등 영적으로 선교가 준비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이 편성됩니다. 12월 3일 주일 전야예배 후에 개강되며, 매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1일 수련회는 연중 3회(2007년 1월 13일, 3월 3일, 6월 2일)의 훈련 중 1회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전체 영성 훈련과 팀장 총무 등 직무별 훈련을 3시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팀 훈련

팀 구성에서부터 팀 파송까지 20회 이상의 자체 팀 훈련을 가집니다. 팀 훈련은 팀장의 주관 하에 영성 훈련(팀 단위로 금요집회와 월요 새벽기도회 참석, 2회 이상 교구 또는 부서 지도교역자가 인도하는 영성 자체 훈련, 사도행전 2독), 선교지역 연구, 팀 훈련, 봉사 훈련(자원봉사 2회 이상 참가), 전도 훈련(2차 영성 심사 전까지 1인 1명 전도), 기도 훈련(주일 선교기도회 참석, 릴레이 금식기도, 자체 철야기도회 등), 언어 훈련, 안전 훈련 등으로 실시됩니다. 팀장 훈련은 말씀 훈련 및 직무 훈련(2회)과 1일 수련회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말씀 및 직무 훈련은 영적인 선교가 되기 위한 팀장의 자제, 선교지에서의 예배 인도, 팀 훈련 및 평가 방법 등 행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선교위원회와 강사들은 훈련을 받는 피훈련자의 개인 파일을 만들어 각 개인의 훈련 상황과 훈련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영적으로 무장된 자들로 이루어지는 단기선교가 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보혈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혈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교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선교 방향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교입니다. 이 십자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질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바울의 선교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07년 한 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보혈의 교인이 됩시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선교지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며 더욱 기도합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2006년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것들을 아직도 지키지 못 했는데 벌써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6년 한 해는 많은 사람이 떠났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세 상적으로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무서우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귀찮다고 교회에 떠나는데, 왜 내게는 좋지 않은 것들만 주시느냐'며 불평 불만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시며 늘 곁에서 다독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사함을 배웠고 회개하였습니다.

제 곁에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고 만하고 나간 자를 늘 기다리고 볼드심을 알고서야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생각이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알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멀리하였을 때 무서우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것만큼 잃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때에는 그저 불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돌아온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많고, 감사함도 많았던 '감사의 2006년'이었음을 느낍니다. 힘든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감사함이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또 주님을 자주 느낄 수 없었을 지도 모르기에 지금은 그 어려움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한 해 나만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또 나를 위해 물어 주셨습니다. 저는 2006년을 잊지 못할 감사함의 한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한시라(고등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주주 예수!

크리스마스! 이 날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며 한 해가 지나가는 아쉬움과 구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 축복과 감사가 함께 하는 날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여흥과 환락, 상술이 관치는 날이 되어 버려 너무 나 아깝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날인데 말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섞이여 이 날을 흥청망청 보낸다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다른 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뜻 깊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때를 맞춰 매주 금요일집 시간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귀한 메시지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가끔은 집회 두 시간 내내 찬양만 부르고 싶어서 때도 있다.

이 찬하고 불쌍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인류의 잔치 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마구간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의 본질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하고 소중한 의미를 잊지 않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유영철(집사, 6교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 갈뿐!

나의 2006년은 놀라움과 평안과 감사가 드라마처럼 일어났던 한 해였다. 몸이 좋지 않았지만 별 다른 증상은 없었다. 이사와 사무실 이전 등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힘든 시기에 주님은 내 심장에 천천히 정결한 '심방중격결손'이라는 병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흥격이었다. 나면서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이 시간까지 몰랐으니 참 신기했다. 이 시간까지 아이들을 출산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아껴며 살아왔다. 그런데 놀랄지도 주님은 이 병을 다른 방법을 통해 알게 하였고, 속히 수술해야 할 상태임을 알려 주셨다. 내가 내 몸의 병에 무지해 있는데 주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정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이 밀려올 때가 많았다. 의술이 발달했으니 편함을 거라고 위로하면서도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이 많았다. 이같이 한심한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어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사랑의 주님이셨다. 주님은 남편과 아홉에 행한 작정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해 참 위로를 주셨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회개와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셨다. 또 이보다 인하여 구역이 바뀌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였지만 주님은 중보기도 할 분들을 나에게 속속 불러 주셨다. 내가 전혀 모르는 권사님을 금요일집 때 옆 자리에 앉게 하셔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위

임 목사님의 말씀에 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꼭 기도를 계속 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가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나를 볼 때마다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다. 또 한 끼 금식을 하며 새벽 기도를 해 주시는 분도 계셨다. 정말 감사했다. 구역 식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청년 2부 지체들도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줬냐'면서 안타까워하셨다. 그 후 내 수술 일정이 연기되어 안타까워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마음으로는 치유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속재를 안고 기도하며 쓸쓸한 오솔길을 홀로 걸어가듯 같은 심장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맘을 아시고 참 좋은 기도 동역자들을 불러 주셨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나가 되어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형제의 연합을 분명 기뻐하셨던 것이다. 신앙 생활에는 목불 장군이 없는 것 같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지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이다. 사랑의 빛을 지며 세움을 입고 그 힘으로 또 다른 이를 중보하며 세워 나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평생 살면서 감사할 일이 그 전에도 이후에도 많았고 많겠지만 올 한 해는 지금의 고백이 참 감사한 일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수술 이후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으셨다. 난 대답했다. "지금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고 당장 무슨 특별한 일을 주님이 하라고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나는 멈출 것이다.

조인희(집사, 청년 2부)

2006년 단기선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성령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증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 그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보다는 항상 내 말과 머리를 먼저 의지하던 '교만한 나'를 저는 선교를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일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팀원들 모두가 불평 없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순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인함으로 도착한 선교지,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 간 전도 언어를 생각했던 것보다 알아듣지 못할 때는 실망도 있었고, 열광기도 부분에서 거절하는 사람을 볼 때는 낙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눈을 감고 전도했던 영혼들을 떠올리면, 총명한 눈으로 바라봐 주던 어린 영혼들, 사랑의 눈길을 가득 담아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던 나이 많으신 할머니, 어눌한 내 언어를 입 모양을 보며 열광기도를 따라해 주었던 잊지 못할 영혼들, 4년 전 처음 간 선교에서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과, 열광기도를 시키지 못한 부분 때문에 죄책감으로 가득했는데, 한 밤이라도 열광기도 시켜달라고 간구했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역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저는 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역 셋째 날 사역지로 이동 중, 작은 길 중간에 있어진 흙 실은 큰 트럭 때문에 우리는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내려야 했고 그 마을에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한 형태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부인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에게 성경책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아쉽게 이별하였습니다. 1분 1초라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야 했던 마을입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보다 지혜로우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넓고 깊게 생각하십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생각지 못했던 풍여자를 붙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매일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정현(성도, 3교구))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선교가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다. 특히 첫째 날은 고난이었는데, 우리 팀은 차를 대여하지 못해 많은 고생을 하였다. 조선택 한분을 만나 차를 대여하려 했는데 그들은 선불로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 문제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시외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타고 보니 마음속에 불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차 안에 너무나 더러웠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불령을 하자 선생님은 기도하자고 하셨다. 모두 돌아가며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불령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 오랜 시간 동안 합동했지만 무사히 사역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되었다. 공인들에게 걸릴까 봐 조마조마 했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봐도 '공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 전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 피하려 했다. 또 뜨거운 햇빛 때문에 힘들고 지쳐만 갔다. 그런데 팀장님이 그걸 아시고 다음 날부터 나를 앞장세워 선교를 시키셨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갈수록 힘이 솟아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다. 영혼 한 명을 인도하는 것이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다. 난 생각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다시 하루가 지나고 그 날 역시 사역을 하러 나왔다. 그런데 그 날마다 공인이 너무 많았고, 내 마음 어디선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인자가 지나가면 해도 도망가고 싶었다. 잡히기가 싫었다. 그 때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난 진짜로 도망가고 말았을 것이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린 전하기만 하고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 난 다시 용기를 내어 전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 날은 전도지가 모자랄 정도였다. 더 주고 싶은데 전도지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다. 만났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박진영(성도, 1부)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란다!

땅에서 흙 냄새가 난다.

말씀이 전해진 골목골목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바람 불어 이파리가 흔들리듯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며 회개하여 찬양케 한다.

바람이 실고 중에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영의 눈을 빛내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책을 전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발로 서는 모습을

뒤여 걷는 모습을

예수님의 능력을 인하여 보리라.

비와 눈이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썩어 나며 열매가 맺듯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의 말로

주께서 우리를 보냈듯이

보람의 온종으로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강복희(집사, 14교구)

연약한 자들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피곤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잠시 끌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더욱 나를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해 파났습니다. 현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보다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막는 현지 경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열심히 걸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깊은 시골 마을이어서인지 젊은 사람들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들께 하늘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했다. 한 마을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현지의 날씨 때문에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 기도하였고, 주님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경순(권사, 8교구)

♡ 새 가 속 을 완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88	발림	19	외선부	
2489	홍승기	19	청년1부	이창기(19)
2490	홍순주	19	외선부	김태홍(1)
2491	박현	19	외선부	최규태(1)
2492	이백민	19	외선부	조민희(7)
2493	손민승	13	청년1부	문수향(1)
2494	김도훈	19	청년1부	김정복(3)
2495	이시은	13	청년1부	이진규(6)
2496	이정호	19	대학부	최준중(1)
2497	이정승	6	청년2부	이진규(6)
2498	박창수	19	청년1부	최준호(13)
2499	한병아	7	청년1부	김성길(7)
2500	박보화	19	외선부	배지미(11)
2501	나리사	19	외선부	배지미(11)
2502	김정옥	2	청년3부	
2503	김은철	1	청년1부	
2504	양은영	19	청년1부	유지철(16)
2505	서석교	10	소망부	김경숙(1)
2506	김남이	19	청년1부	설 웅(15)
2507	윤준식	19	청년1부	남선우(3)
2508	황혜옥	3	청년1부	
2509	송지은	19	중등2부	김혜희(8)
2510	최현서	19	중등2부	김희희(3)
2511	정태영	3	청년3부	차진숙(4)
2512	자기	19	외선부	강영희(5)
2513	정재민	19	청년1부	최은영(19)
2514	정창진	1	청년2부	최은영(19)
2515	정주연	19	대학부	유형근(4)
2516	정세나	19	청년1부	정승환(19)
2517	백진수	19	청년1부	이은주(19)

이재태	정원현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안영진	나영진	정원호	고광환	위관만
김관환	차 훈	임원태	이희식	최종철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최종철	안지현	정종신	양재웅	이성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최국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호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윤성일	황정진	유재진	강명규	전정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김정규	이윤진	양태신	유성택	유원철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 저전도사

윤일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김일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최복심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전은희	김경자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한성일	임태주	강영미	이옥자	이복순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강조숙	전영희	이혜숙		
조국현	조국현	조국현		

■ 찬양감독 강임규

■ 찬양지휘자 서운성

■ 찬양지휘자 김순애

■ 찬양교사 송수환

■ 전염연주자 장원희